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13. 12. 제14권 4호, pp. 27~56.

긍정심리학의 정신건강 요소에 기초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분석*

서 유 진**
전주교육대학교

《 요 약 》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장애학생 가족이 가진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은 가족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장애학생 가족이 가진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장애학생 가족의 삶을 탐색한 국내 질적연구 18편을 선정하여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범주와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긍정심리학의 정신건강 요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10개의 범주, 예를 들어, 새로운 삶의 자세 확립, 장애학생의 성장과 성취에 대한 감사와 만족, 장애학생에 대한 사랑과 믿음 등이 도출되었고, 긍정적 정신건강의 14개의 하위요소 중 사회적 일치와 사회적 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하위요소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사회구성원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장애학생 가족, 긍정심리학, 정신건강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4388)
** 교신저자(yjseo@jnue.kr)

www.kci.go.kr

Ⅰ. 서 론

19세기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심리학은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초기의 심리학의 3가지 실천적인 사명, 즉, 재능과 천재성을 발견하여 육성하는 사명,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는 사명, 심리치료를 통해 인간의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사명 중에서 심리치료를 통해 인간의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사명에만 전념하고 다른 2가지 사명을 소홀히 하였다(Seligman, 2002a, 2002b). 그러나 심리치료를 통해 인간의 정신장애는 완화될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할 확률은 매우 높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까지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즉, 실제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심리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50%가 넘은 비율의 환자들이 재발을 경험하며, 재발한 환자들 중에서 또 2차, 3차로 재발될 확률은 70%, 90%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Ramana 외, 1995; Simons et al, 1985). 이에 Seligman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정신장애, 더 나아가 우울, 분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의 치료에만 초점을 둔 심리학에 회의를 느끼며, 심리학은 지금까지 간과해온, 인간이 재능과 천재성을 발견하고 육성하며,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2가지 사명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리학은 인간이 자신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발견하고, 강점을 계발하여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eligman, 2002a, 2002b). Seligman과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인간의 강점과 능력,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둔 심리학을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라 새롭게 명명하였고, 이러한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은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3가지 요소인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을 성취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게 되면서,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정신장애는 예방, 치료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Seligman, 2002a, 2002b;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장애학생의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그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강조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것이다. 즉, 장애학생 가족이 가진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 강점을 강조함으로서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positive prevention), 설령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족내 적응유연성(positive resilience)을 키워주어 가족들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문제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김은서, 박승희, 2007;

www.kci.go.kr

이유리, 2011, 박지연, 2012; 장은희, 정영숙, 2011; 정계숙 외, 2013).

물론 장애학생의 가족들이 장애학생을 양육하거나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학생 가족의 어려움과 문제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시급성만을 알리는 것은 장애학생의 가족이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박지연, 2012; 이병인, 2004). 왜냐하면, 장애학생 가족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는 장애학생의 가족에게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기력감을 주기 쉽고(이규옥 외, 2010), 비장애학생,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단순한 연민, 비현실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장애학생, 장애학생의 가족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힘든 무능력한 존재로 해석하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김현옥 외, 2012; 김형수, 2004; 정계숙 외, 2013).

따라서 장애학생과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단편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장애학생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를 유지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장애학생과 가족은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장애학생 가족이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과 가졌을 때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는 결과가 입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강선경(2002)은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 14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교육적 태도가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성향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장은희와 정영숙(2011)은 초등과 중등 학령기의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159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세상 또는 타인에 대한 의미, 자기가치감과 같은 거시적 의미와 장애자녀 양육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의미가 심리적 안녕감과 만족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거시적 의미가 긍정적인 부모일수록 장애자녀 양육과 관련된 상황을 보다 초월적,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자녀의 장애를 어머니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내적 귀인의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동시에 자녀의 장애를 운명적으로 받아드리는 운명 귀인의 경향을 보이지 않아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자녀 양육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부모일수록 양육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양육만족도를 높여, 장애자녀와의 관계, 가족 구성원 모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장애학생의 부모가 가진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장애자녀 양육과정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www.kci.go.kr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전체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학생의 부모, 더 나아가 가족들에 대한 연구들은 장애로 인해 가족들이 경험하는 절망, 고통, 죄의식,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수정, 2012; 김은서, 박승희, 2007). 특히, 장애학생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연구 중에서 많은 수의 연구가 장애학생의 가족들이 장애학생을 양육하거나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삶의 질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면접내용의 분석을 통해 가족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과 삶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주제들을 도출하여 연구 결과로서 제시하였다(김은서, 박승희, 2007; 장은희, 정영숙, 2011) 즉, 초·중등 장애학생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중에서 상당 수의 연구들은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부모가 장애학생을 양육하면서 경험했던 어려움,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면접내용을 분석하여, 장애학생의 부모로서 경험하였던 심리적 불안과 죄책감, 장애학생 양육과 교육 따른 우울증, 전문적 교육 또는 사회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곤란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김정연, 윤형준, 2011; 김정연 외, 2005; 박은혜 외, 2005; 박지연, 유은연, 2004; 배혜영, 2009; 백정옥, 최윤희, 2010; 황정현, 2008). 심지어 몇몇 연구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면접질문 자체를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장애를 지닌 형제자매로 인한 고민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식으로 부정적인 경험만을 유도하는 질문만을 제시하여 가족들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한 채,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Hastings & Taunt, 2002; Helff & Glidden, 1998).

물론 장애학생 가족의 인식과 경험을 대상으로 한 몇몇 질적연구들은 장애학생 가족들과의 면접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인식과 경험 뿐만 아니라 긍정적 인식과 경험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장애학생의 미래에 대한 희망, 현실에 대한 만족감, 삶의 의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주제들을 도출하기도 했다(박혜준, Chung, 2010; 이규옥 외,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 수 자체가 부족하여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의 장애학생을 보살피는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탐색하지 못했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 인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해서, 장애학생 가족들이 가진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의 중요성을 타당성있게 강조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김수정, 2012; Blacher & Baker, 2007; Corman, 2009; Hastings & Taunt, 2002). 예를 들어, 이규옥 외(2010)는 3쌍의 장애학생 부모들과 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부모들의 장애학생 양육경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삶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면접결과,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장애학생을 양육하면서 아프고 힘든 경험이 많았지만,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난 후,

www.kci.go.kr

자녀가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규옥 외(2010)의 연구는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부모 각각 한 쌍만을 면접하여 다양한 장애유형, 다양한 연령의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많은 수의 부모가 가진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도출한 주제를 긍정심리학의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렇듯 지금까지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의 장애학생을 돌보는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들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살펴보고, 긍정심리학의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초·중·고 장애학생 가족의 삶을 탐색한 질적연구를 수집하고 연구 결과로 제시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아 국내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장애유형, 다양한 연령의 장애학생을 보살피는 가족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고 범주와 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된 범주와 주제를 앞서 언급한 긍정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긍정적 정신건강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Keyes & Lopez, 2002)를 기초로 분석하여 어떤 정신건강의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장애학생 가족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보다 많은 장애학생의 가족들이 그들의 긍정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가족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장애학생 가족이 다양한 정신건강의 요소를 모두 갖춘 긍정적 정신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반영한 연구 문제 1과 2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국내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은 긍정심리학의 정신건강 모델에 기초하여 어떻게 분석되는가?

www.kci.go.kr

Ⅱ. 연구 방법

1. 선행 질적연구의 선정 과정과 기준

장애학생 가족의 삶을 주제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선행 질적연구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국학술정보(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보문고스콜라, 누리미디어(DBpia), 국회전자도서관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질적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기 시작한(강유석, 노형규, 2009; 박미화, 강성종, 2012) 2000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논문 검색을 위해 장애, 특수교육,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어머니, 아버지 등의 장애학생 가족과 관련된 핵심어를 이용하였고, 질적연구, 현상학, 사례,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생애사 등의 질적연구와 관련된 핵심어를 이용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영역에서 질적연구를 분석한 최근 선행연구(강유석, 노형규, 2009; 박미화, 강성종, 2012; 서유진, 이동성, 2013)의 참고문헌들을 참조하여 핵심어를 통한 논문검색에서 누락된 논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색과정을 통해 총 58편의 장애학생 가족이 연구 대상자로 포함된 질적연구가 수집되었고, 본 연구의 질적연구 선정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질적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질적연구 선정기준

기준	내용
연구 대상	국내 거주 초·중·고 장애학생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등의 가족
연구 주제	장애학생 가족의 삶 탐색
연구 유형	현상학, 사례연구, 근거이론 등과 같은 질적연구의 특정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에 따른 연구과정과 절차를 통해 결과를 제시한 질적연구
연구 내용 및 결과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

한편, 분석대상 질적연구 선정시 제외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학생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어떤 특정한 중재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또는 함께 생활하는 그들의 삶을 주제로 한 연구가 아니기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 유형이 분명하지 않으며, 질적연구의 연구과정과 절차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를 단지 서술적으로만 기술한 연구는 연구과정의 타당성을 확증할 수 없고,

www.kci.go.kr

이에 결과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슬픔, 죄책감, 절망 등과 같은 부정적 인식과 경험에 관련된 결과만을 서술적으로 기술한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질적연구 선정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검색된 질적연구를 각각 적어도 3회 이상 정독하였고, 특히 각 연구의 연구 결과를 수차례 정독하여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의 내용이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는 공동연구원인 특수교육학 전공 교수자 1명과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생 1명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검색된 총 58편의 질적연구 중 40편이 제외되어 총 18편의 분석대상 연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분석대상 연구는 참고문헌에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2. 선정된 질적연구 분석과정

본 연구는 총 18편의 분석대상 질적연구에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과 관련된 인터뷰 진술을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삼고, 인터뷰 진술에서 나타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특히, 개인이 아닌 여러 장애학생 가족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이라는 공통적 현상에 대한 범주, 주제, 의미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경험들에 대한 공통적인 진술을 묶어 단계적으로 인식과 경험의 의미,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분석대상 질적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Colaizzi(1978)의 내용분석 절차를 6단계로 나누어 적용하였는데, 1단계에서 연구자는 우선 각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 제시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과 관련한 구절, 문장 등을 모두 종합하여 정리하였고, 정리한 구절과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있는 내용을 탐색하였다. 2단계에서 연구자는 1단계에서 탐색된 의미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의미있는 구절, 문장을 추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127개의 의미있는 구절과 문장이 추출되었다. 3단계에서 연구자는 추출된 의미있는 구절과 문장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재진술하여, 이를 토대로 의미단위를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78개의 의미단위가 구성되었다. 4단계에서 연구자는 구성된 의미단위를 기초로 범주와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10개의 범주와 2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5단계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범주, 주제, 의미단위에서 나타난 긍정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긍정적 정신

www.kci.go.kr

건강의 요소(Keyes & Lopez, 2002)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14개의 긍정적 정신건강의 하위요소 중 12개의 하위요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으로 적용된 긍정심리학의 긍정적 정신건강 요소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긍정심리학의 긍정적 정신건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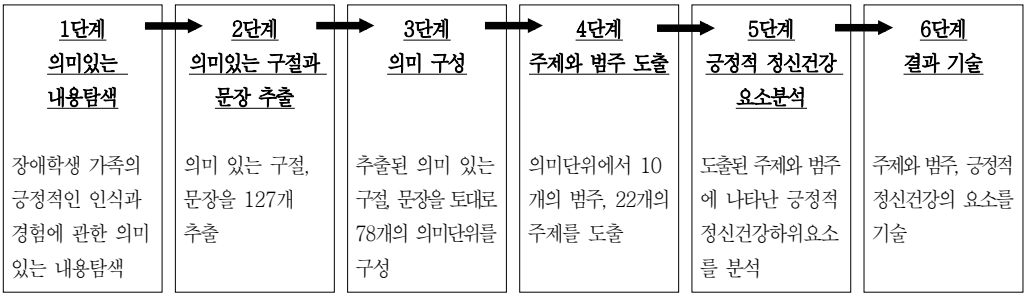
요소	하위요소	내용
정서적 안녕	긍정 정서	기쁨, 행복, 평온, 만족, 충만과 같은 긍정적 정서
	행복감	즐거움이나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이나 경험
	삶의 만족	삶에 대한 만족감과 안도감
심리적 안녕	환경의 통제	외부환경을 잘 통제할 수 있음, 개인에게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
	긍정적 인간관계	타인과의 만족스럽고 신뢰가 있는 관계, 공감과 친밀감에 대한 역량
	개인적 성장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대한 개방성, 지속적 계발과 효과성에 대한 느낌 도전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중요성 인식
	자율성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에 대한 편안함. 타인으로부터의 비도덕적인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음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목표나 신념이 있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자기수용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수용, 과거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사회적 안녕	사회적 수용	사람들의 다양성(복잡성)을 잘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님
	사회적 실현	사람들이 잠재력과 배려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믿음
	사회적 기여	개인의 삶은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사회적 일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회는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예측가능하며, 합리적이고 정의롭다고 느낌
	사회적 통합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지역사회에서 안락감과 지지를 얻음

출처: Keyes & Lopez, 2002

마지막 6단계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범주와 주제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를 기초로 기술하였다. 또한 각 범주와 주제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요소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www.kci.go.kr

의 분석과정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요약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분석대상 질적연구의 결과 분석과정

3. 분석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결과 분석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진실성 점검 요소 중 연구자간 삼각검증, 동료보고, 감사추적 방법을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자간 삼각검증' 을 위해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학 전공 교수자 1명과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생 1명은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자와 함께 본 연구의 분석에 참여하였다. 즉, 연구자는 공동연구원에게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질적연구들을 제공하고, Colaizzi(1978)의 분석과정에 따라 각자 질적연구의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 경험과 인식에 관련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의미단위를 구성하고, 범주와 주제를 도출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범주와 주제를 연구자와 공동연구원은 함께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범주와 주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를 합의하에 도출하였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최종 범주와 주제가 나타내는 긍정적 정신건강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자와 공동연구원은 논의를 통해 합의 하에 결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자간 삼각검증을 통한 논의와 합의과정 속에서 연구자와 공동연구원 개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가능한한 배제하는 판단중지(epoche)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둘째, '동료보고' 를 통해 연구자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정하고, 선행 질적연구를 선정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도출하고 기술하는, 전 연구과정을 수행에 앞서 지속적으로 동료 교수자에게 보고하고, 논의하며, 수행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피드백을 받은 후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의 타당성

www.kci.go.kr

을 확보하고자 했다. 동료 교수자에게 수행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은 경우 연구자는 문제 사항을 동료 교수자와 함께 논의하고, 수정한 후 다시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료 교수자는 사례연구, 근거이론 등 다양한 유형의 질적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교육학 전공자이다. 셋째, '감사추적'을 위해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구절과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의미단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주제와 범주를 어떻게 도출하였는지 그 분석과정을 연구자 노트에 상세히 기록하였고, 이를 수시로 추적하면서 결과를 기술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4. 결과제시와 글쓰기 방식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 주제, 의미단위와 해당하는 긍정심리학의 긍정적 정신건강의 요소를 표로 목록화하여 제시하였고(<표 3> 참조), 결과기술시 도출된 각 범주와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연구의 결과에서 발췌한 의미 있는 진술의 예를 2-3개 제시하였다. 3인칭 시점의 사실적, 기술적 글쓰기 방법을 통해 결과 기술과 해석에 객관성을 최대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문제 1에서 총 18편의 분석대상 질적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범주, 2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 문제 2에서 도출된 범주와 주제를 긍정적 정신건강의 요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정신건강의 14개의 하위요소 중 12개의 하위요소가 나타났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 주제, 의미단위와 긍정적 정신건강의 구성요소에 대한 결과를 <표 3>에 요약하였고, 구체적인 설명을 연구 문제별로 아래에 제시하였다.

www.kci.go.kr

〈표 3〉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범주, 주제, 의미단위와 긍정적 정신건강의 요소 결과

범주	주제	의미단위	정신건강요소
1.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임	• 담담하게 받아들임 • 현실을 인정함 • 장애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바라봄 • 편하게 생각함 • 무뎌짐, 자유로워짐, 초월함	**심리적 안녕:** 자기수용
	타인의 입장을 이해함	•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타인을 배려함, 나누며 살고 싶음 • 타인을 객관적,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	**사회적 안녕:** 사회적 수용
2.새로운 삶의 자세 확립	현실에 대한 감사와 만족	• 세상과 가족을 원망하지 않음 • 현재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삶 •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만족함	**정서적 안녕:** 긍정정서 삶의 만족
	장애에 대한 성숙한 인식과 태도	•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돌아봄 •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됨 • 장애인의 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 •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맞섬 • 장애에 대해 당당한 자세를 가지게 됨	**심리적 안녕:** 자율성
3.장애학생의 양육/보살핌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과 역할 인식	장애학생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각오	• 장애학생 양육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 • 꾸준한 치료 제공에 대한 의무감 • 장애학생의 학업과 교사를 돕기 위한 각오	**심리적 안녕:** 삶의 목적
	장애형제자매 보살핌에 대한 의지와 역할 인식	• 장애학생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도움제공의 의지 • 장애학생의 적극적인 후원자로서의 역할 인식	
4.장애학생의 성장과 성취에 대한 감사와 만족	성장에 대한 감사	• 크게 아프지 않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	**정서적 안녕:** 긍정정서 행복감 삶의 만족
	작은 성취에 대한 감사와 만족	• 작은 성취에 대한 대견함과 자랑스러움 •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행복함	
5.장애학생에 대한 사랑과 믿음	장애학생에 대한 사랑과 믿음	• 장애학생은 행복이자 위안의 대상 • 장애학생이 예쁘고 사랑스러움 • 장애학생은 기쁨의 원천 • 장애학생의 심성에 대한 믿음	**정서적 안녕:** 긍정정서 행복감
	장애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 장애학생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함 • 장애학생과 함께 있다는 것으로 기쁨	
6.개인적 성장과 능력 개발	새로운 학업, 일, 활동의 시작과 계획	• 장애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위해 학업시작, 학위 취득 • 장애학생을 위한 활동보조원으로 일을 시작 • 장애인 관련 직업진로를 계획함 • 장애학생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함 • 장애학생의 부모를 위한 상담활동에 참여함 • 전문협회, 워크샵, 세미나 등 참석	**심리적 안녕:**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사회적 안녕:** 사회적 기여

www.kci.go.kr

〈표 3〉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범주, 주제, 의미단위와 긍정적 정신건강의 요소 결과 (계속)

범주	주제	의미단위	정신건강요소
6.개인적 성장과 능력 개발	보다 올바른 양육/보살핌의 능력과 자신감 강화	• 인내심, 기다려주기 •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 장점을 찾고 칭찬하려는 태도를 가짐 • 눈높이 교육을 제공 •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환경을 조정할 자신 있음 • 문제행동을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기초생활훈련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장체험위주의 지도를 할 수 있음 • 언어적 촉진을 할 수 있음	**심리적 안녕:** 환경의 통제
7.사회적 지지와 지원에 대한 감사	장애학생의 부모에 대한 감사	• 다른 장애학생 부모로부터의 위안, 지지 • 다른 장애학생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과 정보교환 • 다른 장애학생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심리적 안정	**정서적 안녕:** 긍정 정서
	교사, 전문가에 대한 감사	•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사랑, 노력과 지지 • 교사의 따뜻함, 자상함, 전문성 • 교육, 치료, 복지 전문가들의 지원과 관심	**심리적 안녕:** 긍정적 인간관계
8.가족에 대한 감사와 결속력 강화	남편,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도움에 대한 감사	• 지칠 때 위로와 힘이 되어준 가족 • 남편의 헌신적인, 적극적인 도움, 말없는 희생 • 든든하고 대견스러운 장애학생의 형제자매 • 조부모의 도움과 격려에 대한 감사	**정서적 안녕:** 긍정 정서
	부부 간의 결속력	• 남편과 서로 돕고 노력함 • 부부역할의 중요성을 느끼며 결속을 다짐함	**심리적 안녕:** 긍정적 인간관계
	가족 간의 결속력	• 가족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지킴 • 가족 간 유대감, 책임감 강화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	
9.종교에 대한 감사	종교를 통한 자신의 변화	• 양육에 대한 힘을 얻음 • 마음의 위로와 여유를 찾음 • 믿음과 희망을 가짐	**정서적 안녕:** 긍정 정서
	삶 속에서 종교의 역할 강화	• 종교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음 • 가족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역할 • 성경말씀에 의지하기	**심리적 안녕:** 삶의 목적
10.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	장애학생의 미래, 행복에 대한 희망과 계획	• 장애학생이 좋아질 것, 괜찮아질 것을 희망함 • 좋은 치료약에 대한 기대 • 정상으로 될 것 같은 꿈 • 장애학생의 독립에 대한 꿈 • 장애학생의 결혼을 희망하고 계획함 • 장애학생의 평범한 삶을 희망함 • 장애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희망함 •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바램	**정서적 안녕:** 긍정 정서
	가족의 미래, 행복에 대한 희망	• 가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가짐 • 가족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소망을 가짐 • 가족의 행복을 희망함	
	사회의 변화에 대한 희망	• 사회가 변화하리라는 희망과 믿음	**사회적 안녕:** 사회적 실현

www.kci.go.kr

1. 범주와 주제 도출 결과

1) 범주 1: 자신과 타인의 입장 수용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이 가진 장애를 점차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장애학생을 양육한다는 자신의 현실을 편안하고 담담하게 또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듯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의 장애를 거부하다가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을 양육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면서,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이렇듯 장애학생 부모는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타인에 대한 긍정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1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범주 1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임	“지금은 마음에 욕심도 없어지고 운명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내 삶이구나. 내 인생이구나 하고 마음을 비우니까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이기영 외, 2008)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아프지 않고 밝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한답니다. 현실적으로 육신의 고통만 없으면 하고 기도의 소망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마음이 비워졌다는 뜻이겠지요.” (김현옥 외, 2009)
타인의 입장을 이해함	“내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되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었는데...” (설진화, 2012)

2) 범주 2: 새로운 삶의 자세 확립

장애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세상, 가족 또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탓하지 않으면서, 장애학생에게 과한 기대나 욕심을 갖지 않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장애학생과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학생의 형제자매도 장애학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매사에 장애학생과 가족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www.kci.go.kr

싶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장애에 대해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편견, 사회의 편견, 불평등 등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장애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과 인식들에 당당히 맞서고, 이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2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범주 2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현실에 대한 감사와 만족	"진짜 어떡하겠냐.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추슬러졌어요. 근데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저만 마음이 괜찮아지니까 정말 맞구나! 그 말이, 집안이 평화스럽고..." (서명옥, 조원일, 2008)
	"녹색바탕에 푸른 하늘, 발 담그고 물놀이도 하고, 물 장구도 하고, 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웃고 웃으면서 서로 아이가 즐거워 하니까 덩달아 부모도 신나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거." (한미애 외, 2011)
장애에 대한 성숙한 인식과 태도	"쳐다보거나 말거나, 오히려 쳐다보면 그냥 뭐라고 오히려 하지." (김교연, 2012)

3) 범주 3: 장애학생의 양육과 보살핌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과 역할 인식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치료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장애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습발달을 돕고, 학교에서 교사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각오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가 느끼는 장애학생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감은 장애학생의 형제자매에게도 나타나, 장애학생의 형제자매는 미래에 장애학생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자신은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장애학생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이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되어 장애학생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3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6>에 제시하였다.

www.kci.go.kr

〈표 6〉 범주 3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장애학생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각오	"근데 끝이 안 보이더라도 부모는 다 그래야죠." (한미애 외, 2011)
	"크게 생각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있어요. 그리고 '애를 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가 생활 할 수 있게만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박천희, 양성은, 2011)
장애형제자매 보살핌에 대한 의지와 역할 인식	"제 생각 같아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데리고 살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결혼한다면 남편이 좋아할까 걱정이지만 만약 싫다면(장애동생을 데리고 사는 것이 싫다면) 아마 결혼을 안 하지 않을까. 결혼하지 않고 막내랑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요." (전혜인, 2008)

4) 범주 4: 장애학생의 성장과 성취에 대한 감사와 만족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이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고 행복해 했다. 장애학생의 형제자매도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자신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했다. 이렇듯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장애학생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장애학생을 대견스러워했고, 또한 장애학생이 조금씩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하면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대견스러워하고 큰 기대나 욕심 없이 만족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4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범주 4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성장에 대한 감사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앞에 동생과 나란히 섰을 때 벌써 나보다 키도 큰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나랑 똑같이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구나 하고 뿌듯했습니다" (전혜인, 2008)
작은성취에 대한 감사와 만족	"○○가 어떤 사물을 구별할 줄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 너무 사랑스럽고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요" (서명옥, 조원일, 2008)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가 안하던 말을 할 때, 그럴 때 행복을 느끼고, 그게 어른 말투지만은 아이 지능에서 생각할 수 없는 말을 갑자기 할 때, 웃으면서 힘들었던 게 조금이나마 사그라들어요." (한미애 외, 2011)

www.kci.go.kr

5) 범주 5: 장애학생에 대한 사랑과 믿음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이 그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밝고 활발해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학생의 형제자매도 장애학생으로 인해 화가 나고 속상한 적이 많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화되어, 장애학생이 사랑스럽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였다. 이렇듯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장애학생에 대한 사랑, 행복, 감사, 믿음의 정서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5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범주 5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장애학생에 대한 사랑과 믿음	“하지만 우리 애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김현옥 외, 2009)
	“현빈이가 와서 “엄마” 하면서 안아줄 때가 있어요. (중략) 옆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무척 좋은 거에요. (중략) 현빈이가 웃어주고 제 말을 알아줄 때 행복해요.” (한미애 외, 2011)
장애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사춘기 시절 동생이 안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진 적 있었어요. 많이 울었고요. 하지만 몇 년 지나고 철도 좀 드니까 내 동생처럼 예쁜 아이가 없더라구요. (중략)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달려오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해요” (전혜인, 2008)

6) 범주 6: 개인적인 성장과 능력 개발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이 가진 장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전문적으로 장애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인생계획을 설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부모들을 위한 봉사활동 또는 상담활동을 하여 장애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거나 부모가 장애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부모교육 워크샵,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장애학생에게 효과적인 양육, 교육, 또는 치료 방법들,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장애관련 법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양육방식을 고안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잘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의 교육에 욕심을 내거나 조급해 하지 않고, 장애학생을 다그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눈높이 지도를 실시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성숙한 양육태도를 가지면

www.kci.go.kr

서,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장애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6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범주 6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새로운 학업, 일, 활동의 시작과 계획	"(특수교육학과를)선택한 건 오빠 때문이고요. 오빠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아동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특수교육학을 배우고 그 방면에서 취직하려고 나름 준비중이예요. 지금은 창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보다 올바른 양육/보살핌의 능력과 자신감 강화	"저는 기회가 되고 여건만 되면 장애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여러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하고, 또 노력도 해요. 그런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건 우리 S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에요. (중략)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꺼라고 생각을 해요."

7) 범주 7: 사회적 지지와 지원에 대한 감사

장애학생의 부모는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로부터 많은 위안과 도움을 받고 있었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장애학생의 부모는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상호교류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때때로 가족에게보다도 더 큰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있었고, 장애학생의 양육, 교육, 또는 치료 방법, 주변 사회복지 시설, 좋은 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장애학생의 양육에 큰 도움을 받으며 고마워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장애학생을 맡아주고 있는 교사 또는 전문 치료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장애학생의 부모는 교사 또는 전문 치료사의 치료, 훈련에 관한 조언과 장애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 덕분에 장애학생이 지금까지 무사히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장애학생 부모는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 교사 또는 전문 치료사와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받는 위안과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7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www.kci.go.kr

〈표 10〉 범주 7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장애학생의 부모에 대한 감사	"그 분들 중에서도 저와 보다 가깝게 지내는 저의 멘토가 있었는데, 이분은 사회에서 말하자면 선배 장애아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도 이제 장애아의 부모로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도 하고 자리도 잡다보니, 지금은 제가 신참 장애아부모의 멘토가 되어서 도와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요." (이미숙, 2010)
	"여기 엄마들을 만나면은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 뭐랄까. 동지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은영, 2010)
교사, 전문가에 대한 감사	"선생님이나 우리 애 같은 아이들을 둔 엄마들에게도 고맙죠." (김수정, 2011)

8) 범주 8: 가족에 대한 감사와 결속력 강화

장애학생의 부모는 양육으로 지치고 힘들 때, 가족의 위로로 큰 힘을 얻었고, 이에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의 묵묵한 희생과 배려를 지켜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며 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장애학생의 조부모, 이모와 같은 가족 구성원들이 장애학생을 거부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으며, 진정으로 장애학생을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점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부모는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운명을 받아들이며 장애학생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며, 장애학생의 생활지도나 문제행동의 통제를 위해서 비장애자녀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규칙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면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결속력과 유대감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8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범주 8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남편,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도움에 대한 감사	"동생들이 있어서 제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거나 시부모님 또는 남편과 문제가 있을 때 동생들이 저의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자주 전화해서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봐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상인 D를 자기들 조카로 이뻐하기도 하지만, S도 똑같이 이뻐하고 사랑해 주니 그게 고마울 뿐이죠." (이미숙, 2010)
부부간의 결속력	"남편 입장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힘이 들 텐데 그래도 열심히 아이들 양육하는 저를 볼 때 믿음직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고, 얼마 전에 남편이 얘기를 해주어서 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어요." (서명옥, 조원일, 2008)
가족간의 결속력	"초창기 때는 가족, 시댁어른들과 남편이었어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건 가족이었어요." (김현옥 외, 2009)

www.kci.go.kr

9) 범주 9: 종교에 대한 감사

장애학생의 부모는 종교를 가진 후에 장애학생의 장애를, 장애학생의 부모로서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학생을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많은 어려움, 불안감, 고통 등을 신 앞에 내려놓으며 양육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장애학생은 신이 자신에게 또는 가족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선물을 준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애학생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렇듯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면서 장애학생을 양육하고 보살피는데 긍정적인 힘을 얻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9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범주 9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종교를 통한 자신의 변화	“그래서 신께서 저와 S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제 스스로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큰 숨을 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이미숙, 2010)
삶 속에서 종교의 역할 강화	“하나님께서 오빠를 저희 가족에게 안 보내주셨다면 제가 특수교육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겠지요.” (전혜인, 2008)
	“어느 정도 마음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받아들였죠. 결론은 내 자식이고 믿음은 갖지 안했지만 하느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우자.” (이기영 외, 2008)

10) 범주 10: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의 건강, 회복, 성장에 대한 희망과 장애학생의 결혼과 취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속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희망하고 있었다. 장애학생의 형제자매도 장애학생이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앞으로 장애학생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렇듯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장애학생과 가족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또한 장애학생의 부모는 사회가 조금씩 좋은

www.kci.go.kr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에 앞으로 장애학생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범주 10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대표적인 예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범주 10의 세부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의 예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장애학생의 미래, 행복에 대한 희망과 계획	"결혼도 시키고 싶죠. 아빠는 빨리 시키고 싶대요. 우리가 젊어야지 더 빨리 잡아 줄 수 있는 거지." (김수정, 2011)
가족의 미래, 행복에 대한 희망	"되게 맑은 날씨에 뗏목을 타고 현빈이랑 저랑 둘이 동동 떠 있는 거 같아요. 아직은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런데 언젠가는 섬에 도착하지 않을까요?" (한미애 외, 2011)
사회의 변화에 대한 희망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지금은 몇 년 전까지의 장애인 복지정책보다 훨씬 나아졌지요. 지금까지 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변하리라 믿어요" (김현옥 외, 2009)

2. 긍정적 정신건강 요소 분석 결과

1) 정신건강 요소 1: 정서적 안녕

긍정심리학의 긍정적 정신건강 요소 중 정서적 안녕, 구체적으로 긍정정서, 행복감, 삶의 만족의 하위요소들은 총 10개의 범주 중 7개의 범주에서 나타났다. 즉, 기쁨, 행복, 평온, 만족, 충만과 같은 긍정정서의 하위요소가 7개의 범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긍정정서는 범주 2에서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는 모습, 범주 4에서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장애학생의 성장을 보며 만족하며 욕심내지 않는 모습, 범주 5에서 장애학생의 부모가 장애학생을 사랑하고,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범주 7에서 장애학생 부모가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 교사 또는 전문 치료사로부터 받는 위안과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범주 8에서 장애학생의 부모가 가족에게 감사하며 서로 의지하는 모습, 범주 9에서 종교를 통해 장애학생의 부모가 변화하는 모습, 범주 10에서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장애학생과 가족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즐거움이나 기쁨에 대한 느낌이나 경험인 행복감의 하위요소와 삶에 대한 만족감과 안도감인 삶의 만족의 하위요소가 각각 2개의 범주에서 나타났다. 즉, 행복

www.kci.go.kr

감은 범주 4에서 장애학생이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범주 5에서 장애학생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행복해 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은 범주 2에서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무언가를 욕심내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범주 4에서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장애학생이 조금씩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하면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대견스러워하고 큰 기대나 욕심없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정신건강 요소 2: 심리적 안녕

긍정심리학의 긍정적 정신건강 요소 중 심리적 안녕, 구체적으로 환경의 통제, 긍정적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 삶의 목적, 자기수용은 총 10개의 범주 중 8개의 범주에서 나타났다. 즉, 자신이 가진 삶의 목표와 신념을 나타내는 삶의 목적의 하위요소가 3개의 범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삶의 목적은 범주 3에서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장애학생의 양육과 보살핌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인식하고 장애학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모습, 범주 6에서 장애학생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장애와 관련된 전공에 대한 학업을 시작하는 모습, 범주 9에서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자신의 삶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강화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타인과의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가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하위요소가 2개의 범주에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인간관계는 범주 7에서 장애학생 부모가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 교사 또는 전문 치료사와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범주 8에서 가족들과 함께 장애학생 양육을 고민하고 노력하며 함께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인 환경 통제의 하위요소,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성장의 하위요소,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을 나타내는 자율성의 하위요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수용을 나타내는 자기수용의 하위요소가 각각 1개의 범주에서 나타났다. 즉, 환경의 통제는 범주 6에서 장애학생의 부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양육방식을 고안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잘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장애학생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 개인적 성장은 범주 6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의 부모를 위한 봉사 또는 상담활동을 한평생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모습, 자율성은 범주 2에서 장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당당함 속에서 사회의 잘못

www.kci.go.kr

된 점에 맞서고자 하는 장애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의 성숙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 모습, 자기수용은 범주 1에서 장애학생의 부모가 장애학생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정신건강 요소 3: 사회적 안녕

긍정심리학의 긍정적 정신건강 요소 중 사회적 안녕, 구체적으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실현, 사회적 기여는 총 10개의 범주 중 3개의 범주에서 각각 나타났다. 즉,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나타내는 사회적 수용의 하위요소는 범주 1에서 장애학생의 부모가 장애학생을 양육하면서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새롭게 살게 되면서,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긍정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람들의 잠재력과 배려에 대한 믿음과 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회적 실현의 하위요소는 범주 10에서 장애학생 부모가 더 좋은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나타내는 사회적 기여의 하위요소는 범주 6에서 장애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보답할 순서라며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의 부모를 위해 한평생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질적연구 중 장애학생 가족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과 관련된 결과를 제시한 연구 18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Colaizzi(1978)의 내용분석 절차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연구 문제 1로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장애학생 가족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고 범주와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 2로서 도출된 범주와 주제를 긍정심리학의 긍정적 정신건강 3가지 요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 1과 2의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된 논의점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문제 1의 결과, 총 10개의 범주, 2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도출된 10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삶의 자세 확립’의 범주와 관련하여, 장애학생 가족들은 처음에는

www.kci.go.kr

장애학생을 거부하다가 자신의 자녀로 또는 형제자매로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후에는 세상과 가족을 원망하거나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장애학생의 성취에 대한 감사와 만족', '장애학생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의 범주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작은 성취, 성장, 변화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애학생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바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장애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행복해하고 감사해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학생의 양육/보살핌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과 역할 인식' 의 범주와 관련하여, 가족들은 장애학생의 양육과 보살핌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속에서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장애학생을 돌보고, 든든한 후원자로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인생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장애학생의 형제자매 중 몇몇은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을 염두하며 자신의 직업, 배우자 선택, 결혼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개인적인 성장과 능력개발' 의 범주와 관련하여 장애학생 가족들은 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타인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장애, 평등, 차별, 편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을 보다 전문적으로 양육하고 이해하고자 특수교육과 관련된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다양한 세미나,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진로를 새롭게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계발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지원에 대한 감사' 의 범주와 관련하여, 장애학생 가족은 장애학생을 둘러싼 주변사람들, 예를 들어,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 교사, 전문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이는 장애학생의 부모가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와 장애학생 양육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적인 면에서의 도움 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부모는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며 장애학생에게 효과적인 양육과 교육 방법, 교육기관, 각종 장애관련 세미나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장애학생 양육과 교육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감사와 결속력 강화' 의 범주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며, 자신이 지칠 때 힘이 되어주는 조부모, 남편, 또는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해서 희생하며 노력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 간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가족 간 결속력과 유대감 속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가족 간 행동규칙을 세우고, 이를

www.kci.go.kr

지키며 생활하고 있었다. ‘종교에 대한 감사’의 범주와 관련하여, 장애학생 가족은 종교를 통해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힘을 얻으며 마음의 위로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종교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찾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의 주제와 관련하여 장애학생 가족은 장애학생이 점점 나아질 것이고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족 전체의 행복에 대해 기원하고 있었다. 또한 점차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그 사회 속에서 장애학생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 질적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어왔던,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들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구성원들은 장애학생 가족이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 긍정적인 삶의 모습들,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장애학생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변화시켜 앞으로 장애학생 가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장애학생 가족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나약해지거나 자포자기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진 긍정적인 강점을 자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학생 가족이 가진 긍정적 인식과 경험에서 도출된 범주와 주제들에서 나타난 정신건강 요소에 관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긍정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정신건강의 3가지 요소인 정서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의 하위요소 14개 중 12개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범주와 주제에서 정서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의 하위요소가 많이 나타났고, 정서적 안녕의 하위요소 중 ‘긍정 정서’가, 심리적 안녕의 하위요소 중 ‘삶의 목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적 안녕의 하위요소는 정서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의 하위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사회적 안녕의 하위요소 중 ‘사회적 일치’와 ‘사회적 통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일치’와 ‘사회적 통합’의 의미에 기초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 장애학생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 경험, 사회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며,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느끼며,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안락감을 가지며, 지역사회로부터의 충분한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 경험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 가족의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예를 들어, 가족의 긍정적 정서, 인격적 성숙, 역량 강화, 사회적 지원 등의 요소들 중에서 사회적 지원의 요소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선행 양적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수정, 2012; 김은서, 박승희, 2007; 정계숙 외, 2013).

www.kci.go.kr

다시 말해서 이는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장애학생 가족의 행복추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박혜준, Chung, 2010; 이금진, 2008; 이숙자, 2005; Hastings & Taunt, 2002; Thomton, 2002),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는 장애학생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 가족이 사회 속에서 그들 스스로 무기력하고 불행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그들의 삶을 보다 가치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수정, 2012; 이규옥 외, 2010; 이유리, 2011; 정계숙 외, 2013; Singer 외, 1993). 예를 들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교육청, 학교, 관련서비스 기관을 통해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부모지원,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유진, 2010, 2012; 서유진, 남숙경, 2013). 특히 장애학생 가족이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가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애학생의 부모가 장애학생 부모간의 자조집단 형성을 통해 지지적 사회관계를 형성, 확대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부모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개별상담 또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전환, 직업교육, 재활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하며(이유리, 2011; 정계숙 외, 2013),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장애학생 가족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가지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의 기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학생의 가족, 예를 들어 저소득층, 편부모, 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 가족의 기초생활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비와 치료비 감면과 무상혜택과 같은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정계숙 외, 2013). 이러한 사회정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장애학생 가족은 사회가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사회가 그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삶에 희망을 가지며 보다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확보 뿐 아니라 장애학생 가족을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 역시 매우 절실하다. 즉, 장애학생 가족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이들을 무기력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사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과 동등한 일원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규옥 외, 2010; 이유리, 2011; 정계숙 외, 2013; Hastings 외, 2005; Trute 외, 2007). 왜냐하면 사회구성원들의 장애학생 가족을 바라보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속에서 결코 장애학생 가족은 긍정적인 삶을

www.kci.go.kr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을 양육하거나 돌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대한 인터뷰 또는 설문지를 직접 실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는데, 이를 직접 실시하는 다양한 추후연구를 통해 장애학생 가족이 가지는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장애학생 가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장애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애학생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동정하지 않으며 장애학생 가족이 그들의 성장과 변화에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존재라는 믿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의 장애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는 추후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장애학생 가족의 인식 전환에도 앞장서서 장애학생 가족이 비관적이고 자포자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경 (2002). 장애자녀 부모의 태도,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7-35.

강유석, 노형규 (2009). 특수체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 고찰.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7**(3), 285-310.

김수정 (2012).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과 가족적응과의 관계에서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친 긍정적 기여에 대한 부모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3), 41-72.

김은서, 박승희 (2007). 정신지체 자녀 양육이 가족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서·행동장애연구, 23**(4), 263-289.

김정연, 윤형준 (2011). 근이영양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54**(1), 1-20.

김정연, 이금진, 김은숙, 김주혜, 박지연 (2005). 의사소통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0**(1), 58-81.

김형수 (2004). **되풀이되는 차별과 소외의 역사, 그 치밀함의 이중성.**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pp.64-81). 경기도: 한울 아카데미.

박미화, 강성종 (2012). 한국 특수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2), 205-226.

박은혜, 김미선, 김정연 (2005). 건강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연구, 12**(1), 223-243.

www.kci.go.kr

박지연 (2012).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증거기반의 실제.** 서울: 학지사.

박지연, 유은연 (2004). 장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가족지원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9**(2), 139-169.

박혜준, Chung G. H. (2010). 내 아이가 나를 키워준다: 장애아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족과 문화, 22**(3), 1-29.

배혜영 (2009). 자폐범주성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9**(1), 137-157.

백정옥, 최윤희 (2010). 일반중학교 진학에 따른 장애학생 어머니의 전이 경험과 요구. **특수교육, 9**(2), 51-78.

서유진 (2010).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연구 방안: 장애학생 상담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4**(4), 133-174.

서유진 (2012). 학습장애 학생들의 정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상담 연구 특징 분석. **학습장애연구, 9**(2), 187-214.

서유진, 남숙경 (2013). 장애학생 상담에 대한 초등학교 통합교사의 역할 필요도와 수행역량 인식 수준과 요구도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5**(3), 183-202.

서유진, 이동성 (2013). 학령기 장애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의 특성 및 연구방법론적 준거 충족도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5**(1), 399-430.

이금진 (2008).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망과 지원정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1), 43-61.

이병인 (2004). **장애 아동 가족지원의 이해.**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이숙자 (2005).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유리 (2011). 지적장애 청소년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1), 297-321.

장은희, 정영숙 (2011). 장애아 어머니의 긍정적 의미부여와 심리적안녕감·돌봄 만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51-1081.

정계숙, 박재국, 최은실, 서보순, 박희경 (2013). 장애 유아·비장애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연구, 33**(1), 153-174.

황정현 (2008). 시각중복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 이차성징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여아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5**(1), 111-128.

Blacher, J., & Baker, B. L. (2007). Positive impact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o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12*(5), 330-348.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E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orman M. K. (2009). The positives of caregiving mothers' experiences caregiving for a child with autism.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90*(4), 439-445.

Hasting, R. P., Beck, A., & Hill, C. (2005). Positive contributions made by children

www.kci.go.kr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family: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9*(2), 155-165.

Hasting, R. P., & Taunt, H. M. (2002). Positive perception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7*(2), 116-127.

Helff, C. M., & Glidden, L. M. (1998). More positive or less negative? Trends in research on adjustment of families rear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36*(6), 457-464.

Keyes, C. L. M., & Lopez, S. J. (2002). Toward a science of mental health: Positive directions in diagnosis and intervention. In C. R. Snyder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45-5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Ramana, R., Paykel, E. S., Cooper, Z., Hayburst, H., Saxty, M., & Surtees, P. G. (1995). Remission and relapse in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5,* 1161-1170.

Seligman, M. E. P. (2002a).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Seligman, M. E. P. (2002b).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Simons, A. D., Murphy, G. E., Levine, J. L., & Wetzel, R. D. (1985). Sustained improvement one year after cognitive and/or pharmacotherapy of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43-48.

Singer, G. H. S., Irvin, L. K., Irvine, B., Hawkins, N. E., Hegreness, J., & Jackson, R. (1993). Helping families adapt positively to disability: overcoming demoralization through community supports. In Singer, G. H. S., & Powers, L. E. (Eds.)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Active coping skills and strategies for family interventions Baltimore*, MD: Brookes, 67-84.

Tomton, A. A. (2002). Perceiving benefits in the cancer experi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Med, 9,* 153-165.

Trute, B., Hiebert-Murphy, D., & Levine, K. (2007). Parental appraisal of the family impact of childhood developmental disability: Times of sadness and times of jo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32*(1), 1-9.

www.kci.go.kr

분석문헌

김소형, 한경임 (2013). 진행성근위축 아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분석.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187-213.

김수정 (2011). 자립초기 지적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3**(4), 149-174.

김현옥, 김경호, 박지현 (2009). 장애 아동 양육자의 장애수용과 희망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7**(12), 35-72.

박천희, 양성은 (2011). 장애아동어머니의 자녀 취학준비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19-133.

서명옥, 조원일 (2008). 지적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및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0**(3), 319-348.

설진화 (2012). 지적장애 형제에 대한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들의 경험. **재활복지, 16**(4), 91-113.

이금진, 박승희 (2005).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결정의 배경: 어머니의 의견과 해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4**(2), 43-74.

이규옥, 한성희, 박혜준 (2010).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 본 가족의 성숙과 변화.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137-163.

이기영, 박인숙, 소희영 (2008).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 **재활간호학회지, 11**(1), 32-40.

이성용, 강영택 (2010).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의 전학이 지체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7**(1), 223-238.

이미숙 (2010). 한 부모 가정 어머니의 중도·중복장애아동 양육 적응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6**(2), 23-49.

이숙향, 안혜신 (2011). 중등 통합교육의 현실 및 지원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장애학생과 부모의 통합교육 경험 및 인식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3**(1), 203-235.

이은영 (2010).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한 통합교육 과정의 경험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2**(3), 269-289.

전혜인 (2008).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2), 159-179.

한미애, 장기연, 곽내화 (2011). 긴장의 연속: 일반초등학교에 장애아동을 입학시킨 어머니들의 일년간의 경험과 변화.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3), 35-50.

구자현, 한경임 (2008). 장애아동 비장애 형제 생활경험의 근거이론적 분석.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1**(3), 199-218.

한경임, 김지현 (2007).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분석.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중복·지체부자유연구, 49**(1), 277-297.

한경임, 송미승, 박철수 (2003). 장애 아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정서·행동장애연구, 19**(3), 55-66.

www.kci.go.kr

Analysis of the Positiv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Famil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Elements of Well-being in Positive Psychology

Seo, You-Ji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With perspectives of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play important roles for famil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deal with and solve various problems, and enjoy happiness in their lives. Considering of the important roles of these positiv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llect 18 qualitative studies which investigated the lives of families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o analyze the results related to their positiv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Also, the study was to identify with the categories and themes from the results, and to analyze them based on the elements of well-being in positive psychology. As the results, a total of 10 categories, for example, new perspective on life, gratitude and satisfaction on the growth and achieve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having love with and believing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all elements of well-being in positive psychology except for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coherence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results, a variety of social policy and program, and roles for members of our society to support families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Famil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Positive Psychology, Well-being

논문 접수: 2013. 11. 05 심사 시작: 2013. 11. 10 게재 확정: 2013. 12. 10

www.kci.go.kr